

구 홋카이 잡곡(주)

홋카이 잡곡 주식회사는 1907 년에 사카이마치 거리에서 문을 열고 1931 년에 폐업할 때까지 잡곡의 수탁 판매와 거래를 했습니다. 건물은 2022 년에 개수되어 갤러리로 재이용되었으며, 현재는 유리 공예품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2 층 건물은 사카이마치 상점가의 한구석에 들어서 있으며, 화양절충(일본식과 서양식의 결합)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에도 시대(1603 년~1867 년)의 전형적인 목조 상인 가옥과 비슷하지만, 목골석조 건물이며 응회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외관의 석조 세공에는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어 20 세기 말에 유럽에서 인기 있었던 르네상스 리바이벌 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정면에 ‘우다쓰’(방화벽)가 있어 이 거리에 있는 더 오래된 건물들보다 눈에 띕니다. 윗부분이 기와로 덮여 있는 이 돌벽은 건물이 밀집되어 지어진 도시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다른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1902 년 화재로 주변의 많은 상업 건물이 소실되면서 그 이후 사카이마치 거리에는 방화벽을 설치한 건물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